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의 나이 30세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 동안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지만 30세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난을 겪었고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5:10). 물론 이 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 눈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장1절에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 성이라 불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비록 웃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져 죽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을 후에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궤를 위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7:5-6)."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넓고 잘 지은 건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공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66장1-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

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7장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계속해서 16절에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은 가까이는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장30절 말씀은 다윗이 받은 이 말씀이 단지 솔로몬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지금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그의 영적인 시각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통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뿐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31절은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바로 다윗이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영적인 시각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41절 이하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덧붙이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21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가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22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21절 말씀에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도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도 읽어 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엡2:22).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 4장씩 성경을 읽으며 매일 30분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적인 형식에 머문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

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